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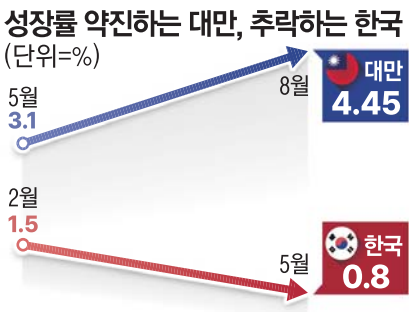
‘네 마리 龍 역전극’ 대만, 한국 재추월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할때
대만, 올해 전망 3.1→4.45%
1인당 소득 내년 4만弗 유력

1970-1980년대 고도 성장의 대표 주자였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5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경제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다. 네 마리 용 중 가장 앞섰던 한국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대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인당 GDP는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엔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계총처는 대만 정부의 세출입·회계·통계 주무 기관이다.

한국은 대만보다 한참 앞선 2014년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를 맞이했으나 지난해까지 3만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0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4.4%, 3.1% 성장했다. 한국은 0.5%에 그쳤다. 대만 약진의 배경은 인공지능(AI) 관련 수출이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앞세운 대만의 반도체 공급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자료=대만 주계총처·한국은행

망은 AI 서버용 칩과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대만의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24.04% 늘어난 589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전 올해 수출 증가율 예상치 8.99%에서 대폭 올랐다. 차이위다이 주계총처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에도 AI 모멘텀이 꺾이지 않아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수출 전망이 더 밝아졌으며 내년까지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대만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망치 1.6%에서 3개월 만에 절반으로 꺾은 것이다.

김덕식 기자

12세에 직업 정하는 네덜란드, 한국은…



알래스카 노딜 지난 15일 (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부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마·러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왼쪽) 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푸틴 뜻대로…트럼프 “평화협정 직행”

미·러 ‘우크라 휴전 노딜’
트럼프, 18일 젤렌스키 만나
휴전 대신 협정 압박 나설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15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휴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노딜’로 끝났다.

관련기사 A2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수용하며 ‘즉시 휴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것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합의하기 전까

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상회담 전 ‘즉시 휴전’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트럼프·젤렌스키·푸틴’ 3자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물러섰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이젠 학벌보다 기술 ㉠

네덜란드 대학진학률 89%
한국 4년제에 해당하는
연구중심대는 17% 불과
韓은 30세까지 취업준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인근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노아 씨는 12세에 직업 중등교육과정 에 들어가 4년간 요리·제과 기초를 배웠다. 16세 때는 통상 1~4년 과정인 고급 직업교육과정에서 전문 요리 과정을 거친 뒤 요리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대학교 주방에서 실력이 더는 건 아니다”며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돈을 버는 지금이 보람 있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1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대학 진학률은 89.4%다. 한국의 4년제 대학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이다. 나머지는 실무 중심 응용대학에 진학하거나 노아 씨처럼 취업 전선으로 직행한다.

네덜란드는 12세 무렵에 교사 평가, 학업성취도, 적성 등을 감안해 진로를 결정한다. 연구중심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교육 예비과정(6년), 실무 중심 응용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위 중등교육과정(5년), 취업을 준비하는 중등 직업교육과정(4년) 중 하나를 선택한다. ‘우보 에미어스 스쿨’ 교장인 여문 바르펠트 씨는 “자녀를 억지로 상급학교에 보내기보다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이 같은 ‘맞춤형 인재 전략’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40% 수준, 인구는 1800만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7만 619달러로 한국(3만 6024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 청년들은 30세 가까이 돼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인문계 고교 선호 탓에 대학에 들어간 후 취업 스펙 쌓기가 시작된다. 입시 경쟁으로 ‘N수’가 일상화돼 있고, ‘도피성 대학원 진학’도 만연해 진로 결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직업계고 교사 출신 송낙현 충남대 건설공학교육과 교수는 “대학 진학 대신 기술을 익혀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길이 보장된다면 입시 과열과 대학 서열화 같은 고질적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스테르담 이용익 기자

세아, 우주선 소재 첫 국산화

900도 견디는 ‘초내열합금’

세아그룹이 미국, 일본 등 소수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던 ‘초내열합금’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관련기사 A15면

초내열합금은 항공기, 로켓 엔진, 원자로 가스터빈 등에 쓰이는 미래산업 핵심 소재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달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항공기 엔진 부품인 ‘터빈 엔진용 리테이너’(엔진 내부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부품)에

들어가는 초내열합금 소재 시제품을 공급한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시제품 생산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정식 공급을 전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과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초내열합금은 니켈, 코발트 등을 주원료로 만든 특수합금으로, 일반적으로 700도 이상 고온 환경을 견디는 소재를 의미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소재는 초내열합금 중에서도 900도 이상 초고온을 견디는 고급 소재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최초다.

정지성 기자

증시전략 B1~8면 Golf C1~4면 틈매일경제 오늘 발행

“韓, AI 확산 최대 걸림돌은 노조”

한국경영학회 설문조사
“AI 도입점수 80점 미만” 67%
융합학술대회 오늘 개막

한국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첫손에 꼽혔다. 한국의 AI 도입 점수는 60~80점으로 낙제를 간신히 면한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련기사 A4면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국내 경영학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는 18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린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 확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나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1%(76명)가 ‘노조’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21%, 51명)와 ‘경영진’(21%, 51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AI 도입 및 확산 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이란 질문에 ‘71~80점’을 꼽은 응답자가 34%(83명)로 가장 많았고, ‘61~70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81명)였다.

특별취재팀



DI동일 70년:

실 한 올의 집념으로, 미래의 판을 짜다

1955년, 섬유훈 올에 담은 장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초석을 다진 DI동일.

섬유에서 시작하여 첨단 금속 소재, 친환경 엔지니어링 설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직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술로 산업의 숨결을 이어갑니다.

고객, 주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갈 미래.
동일은 견고한 기술력과 혁신의 DNA로
산업의 판도를 바꿀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립

주년